

논단

블루베리의 도입과 산업전망

1. 머리말

그 동안 연간 생산량에 따라 가격 등락을 보이던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이 한미 FTA라는 큰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과일류 피해액 계측 결과'에 따르면 감귤은 연간 676~930억원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되어있고 혹자는 1,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손실액 차이는 있을지언정 감귤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득이 감소된다는 사실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이런 시기에 감귤을 보완할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 감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감귤이라는 가장에게 소득을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교통사고 또는 질병에 걸려 가장이 쓰러져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다면 그 가정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반면 가장을 비롯하여 아내, 아들, 딸이 골고루 소득이 있다면 가장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정은 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작목들로 다과종(多果種) 적정생산 체제를 갖추

어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놓으면 제주농업은 경쟁력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블루베리란

블루베리는 몇 안 되는 미국 원산인 과수로 진달래과 산앵두나무속에 속하는 관목성 과수이다.

농업연구관 **문두영**
 난지원에작물과
 ☎064-741-2554
 moondye@rda.go.kr

블루베리는 원래 인디언들이 식량과 약용으로 이용하던 작물이었는데, 1620년 미국으로 처음 이주하였던 102명의 유럽



〈그림 1〉 블루베리 결실상태

인들이 북아메리카 땅에 도착한 첫 겨울에는 매우 혹독하고 추워 채소나 과일이 전혀 생산되지 않았다. 시일이 지나면서 백인 아이들이 괴혈병에 걸려 신음하고 죽어가게 되었는데 이를 본 인디언들이 자신들이 수확하여 말려 두었던 블루베리를 백인들에게 나눠주어 아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본 후에야 백인들이 블루베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프로안토시아닌, 래스베리톨이라는 특수성분이 들어 있는데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성분은 인간에게 매우 유용하여 삶의 질을 좋게 하면서 무병장수하게 만드는 과수로 그 효용가치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21세기형 과수라고 알려지고 있다.

2002년 1월 21일자 미 타임지 발표에 의하면 미 농무성에서 미국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종류 54가지를 수집하여 그 성분을 조사 분석한 결과 블루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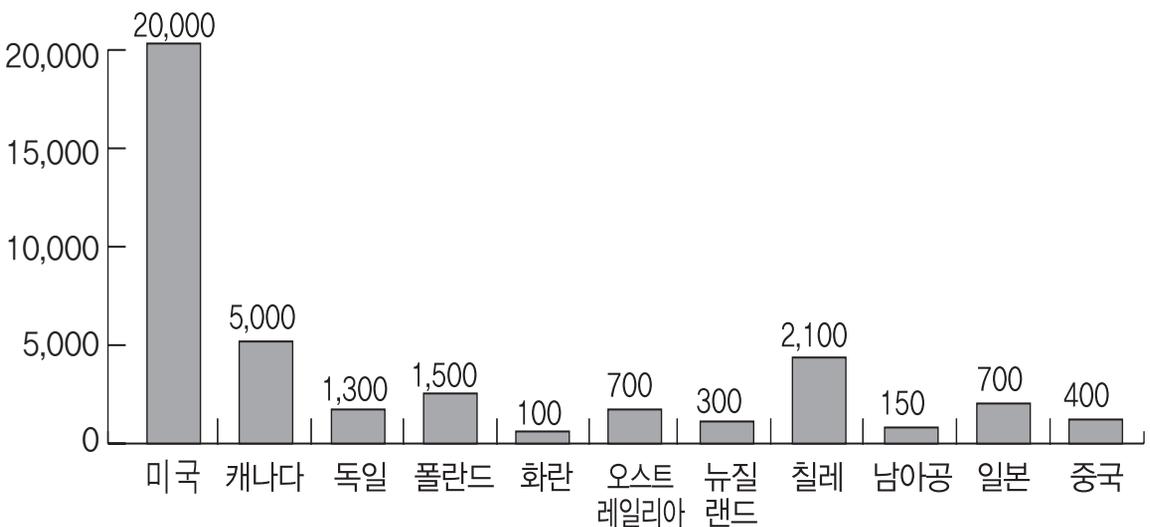
리가 가장 인간의 건강에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은 토마토, 시금치, 견과류, 브로콜리, 귀리, 마늘, 녹차, 적포도주, 연어와 더불어 블루베리가 세계인이 추천하는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시력의 회복과 증진, 혈소판 응고의 억제, 망막의 변성과 백내장의 방지, 요로 감염증의 치료, 발암억제, 항산화작용, 치매예방, 파킨슨병의 치료, 혈당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블루베리 산업 현황

블루베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재배되고 있다(그림2).

이들 국가들은 생과의 소비뿐만 아니라 와인 등 가공산업이 뛰어나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소비되고 있다(그림3).

미국은 2005년 2만ha에서 2008년 2만6천ha로 2013년에는 3만ha로 재배면적을



〈그림 2〉 국가별 블루베리 재배 면적(2005)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700ha이나 블루베리가 다른 과실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하여 재배면적을 전국에 확대시켜 생산량을 현재의 10배인 만 톤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장래 인구 1억 2천만명의 일본인이 1인당 1kg씩을 소비한다면 12만톤의 소비가 가능하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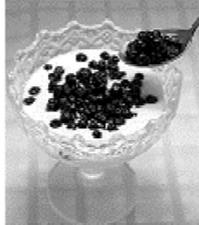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6년 재식면적이 약 25ha

정도로 비교적 최근에만 도입되어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4. 블루베리 산업 전망

블루베리 역시 다른 과수와 마찬가지로 장, 단점을 지닌 과수이다. 장점으로는 첫째, 비교적 나무가 어릴 때부터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통 2년생을 심으면 다음해부터 결실이 되나 이때 그대로 두면 나무 생육이 떨어

시럽절임통조림	잼	블루베리 차	젤리	소스
				
주스	드링크	와인	제과(파이가 머핀)	건조 블루베리
				

〈그림 3〉 일본 블루베리 제품

지기 때문에 4년생부터 열매를 맺히는데 8년생 이상이 되면 10a당 1,000kg이 수확되고 2005~2006년에는 200g당 7,000원씩 고급백화점에서 판매가 되었지만 많이 재배가 되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미국과 일본을 참고로 할 때 1kg에 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 10a 당 천만원 소득은 가능하며 수입 자유화가 되어도 물류비용 등 여건상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둘째,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 블루베리에도 병해충이 발생하나 다른 과수와 비교하여 그 발생 빈도가 낮아 농약을 1~2회 살포 또는 무농약 재배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수출도 가능하다. 일본은 연간 사과를 만톤 이상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품질을 고급화하고 작형을 개발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반대로 단점은 첫째, 개원비가 많이 들어간다. 블루베리는 보통 2~3년생을 심는데 묘목대가 2년생은 2만원, 3년생은 2만 5천원~3만원 정도로 비싸 묘목 값이 많이 들고 또 이 과수는 산성토양(pH4.2~5.2)을 좋아하므로 토양보정을 위하여 블루베리 재배용 피트모스를 사용하게 되면 더욱 개원비가 높아진다.

둘째, 수확 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 블루베리는 포도와 같이 과방이 한꺼번에 익지 않고 약 60% 정도밖에 일시에 익지 않으므로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나머지 40%는 1차 수확 후 7~15일 후에 되는데 일본의 경우 잘 따는 사람은 하루에 80kg, 못다는 사람

은 40kg정도 수확한다.

셋째, 블루베리는 태풍 등 강풍에 약하므로 풍해방지를 위해서는 방풍수 또는 파풍망 설치가 필요하다.

5. 결론

블루베리를 도입한지 50년이 지난 일본에서도 확실한 고품질 재배법이 확립되지 못하여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 1952년 전후에 새소득 작목으로 도입된 블루베리는 재배법 미확립과 판로 미개척 등으로 처음 도입하여 과원을 조성하였던 농민들은 모두 실패하고, 1975년경에 2차로 도입한 농민들이 성공하여 지금의 블루베리 산업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5년경에 처음 도입하였으나, 재배법을 몰라 일반과수와 마찬가지로 소석회를 살포하고 심는 등 재배관리의 부실로 실패하였고, 200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왔다. 그러나 웰빙시대에 매우 적합한 과수로 알려지면서 다시 도입되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어쨌든 블루베리는 마이너 작목(소면적 재배작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1,000ha까지 밖에 재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과, 배 등 다른 과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재배가능 면적이 적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블루베리 재배에 성공하려면, 연구 또는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 품종선택 등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재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